

온전함을 포용하기:
언약의 삶을 위한
땅의 관점

인도자 지침서

페이 윌슨(Faye Wilson)과
엘렌 립시(Ellen Lipsey) 공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온전함을 포용하기: 언약의 삶을 위한
땅의 관점 인도자 지침서

페이 윌슨(Faye Wilson)과 엘렌 립시(Ellen Lipsey) 공저

© 2018 판권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있음.

United Methodist Women, 475 Riverside Drive, Room 1501,
New York, NY 1011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인도자 지침서와 여기 수록된 내용은 내용을 바꾸지 않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음. 그 경우 다음 문구가 복사된 내용에 들어가야 함: <온전함을 포용하기: 언약의 삶을 위한 땅의 관점>에서 발췌함

© 2018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복사할 수 없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경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 사랑,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 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목차

서론	5
제 1장: 거룩한 창조	12
제 2장: 거룩한 공동체	21
제 3장: 거룩한 자아	30
제 4장과 5장: 언약의 삶—실천하면 된다!	36
부록 A: 요약과 나눔의 전략	46
부록 B: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실과 첫 단계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13가지 원칙 사용	48
저자 소개	52

서론

우리는 꿈을 꾸라는 격려를 받는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 노력하라고 도전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매년 더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말을 듣는다: 폭 쉬고, 잠을 더 자고, 설탕을 덜 먹고, 더 많은 채소를 먹어라—이런 제안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2016년에 미국 <은퇴자 협회 발행 잡지> (*AARP The Magazine*), 10월/11월 호에 실린 “내년에는 더 젊게”라는 기사는 독자들에게 자기들이 구체적인 몇 가지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글을 쓴 저자들은 크리스 크롤리(Chris Crowley)와 헨리 에스 로지(Henry S. Lodge)라는 의학박사인데, 에어로빅 운동을 하고 깨끗한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하고 강하고 오래 사는 열쇠라고 제안한다.

<온전함을 포용하기: 언약의 삶을 위한 땅의 관점>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저자인 제씨카 스톤사이퍼(Jessica Stonecypher)는 우리에게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 시작과 동시에 끝이 되는 장소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자신을 “성인 여자의 몸에 사는 어린아이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가 땅에서 자기의 발바닥으로 들어와 자기의 온몸에 흐른다는 것을 믿어왔다.

이 교재는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과 장소들과 연결된 삶에서 온전함을 포용하라고 격려한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창조 세계의 일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온전해질 것이다. 거룩한 공동체 일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도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주장할 때, 우리

는 ‘간편’한 음식과 옷, 그리고 피상적인 우정에서 벗어나 초점이 있고, 믿음에 근거한 사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맥락에서 사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다—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고, 우리를 우리의 창조주와 연결하여 언약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도자 지침서는 당신과 참가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온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구의 관점에서 언약의 삶을 탐색해 볼 것을 요구한다. 네 번의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교재를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바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를 통해서—쓰고, 대화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등—〈온전함을 포용하기: 언약의 삶을 위한 땅의 관점〉을 읽은 모든 독자들이 우리의 온전함이 자신의 가족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지구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 인도자 지침서는 선교학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일학교, 속회, 여성교회 모임, 소그룹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방법으로 선교학교 공부를 준비할 수 있다:

- 당신 자신과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참가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라.
- 교재를 적어도 두 번은 읽는다. 처음에는 하이라이터나 펜을 가지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구절에는 밑줄을 긋고, 찾아보아야 할 단어나 구절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중요한 아이디어나 생각에는 노트한다. 교재를 읽다가 생기는 질문들은 적어 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선교학교 모임을 인도할 때 참고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의 목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장마다 약 20가지의 중요 관념과 생각들의 목록을 만들 것을 고려해 보라. 이런 식으로

참가자들이 자기들에게 인상 깊었던 용어들을 나눌 때 당신은 그것을 긍정하면서 “그 용어가 내게도 인상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또한, 모임 인도자로서 당신은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요점들도 반드시 나누도록 한다.

- 당신이 교재를 읽고 선교학교 모임을 준비하는 동안 공부 주제와 관련된 글,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별도 자료집을 만들기 바란다. 예를 들면, 인도자로서 당신은 건강에 초점을 두거나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교재의 참고 도서 목록에 있는 책들을 읽어 보라. 동시에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대중 잡지도 고려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굿 하우스 키핑>(Good Housekeeping), <타임>, <뉴스위크>, <오 매거진>(O Magazine), <미국 은퇴자 협회 잡지>(AARP The Magazine) 등)
- 모임의 흐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인도자 지침을 한 번 읽어 보길 바란다. 인도자 지침서는 다음의 공통 내용이 있는 네 번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배
 - 깊이 파고들기: 본문 탐구
 - 벽에 그림 그리기
 - 웨슬리의 지혜
 - 헌신의 시간

또, 참가자들이 본문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의 생각들을 실천하도록 돕는 여러 관념에 친숙해지도록 한다. 선교학교는 어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운다고 전제한다. 가능한 많은 감각을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여러 배움의 스타일을 고려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각, 신체 움직임을 통한 참여, 언어, 사회적, 독립적인 스타일 등). 각 모임에서 이러한 기회들은 인도자인 당신과 참가자들이 어떻게 본문을 이해하고 이 교재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는지 결정할 기회가 된다.

노트: 많은 사람이 향이나 향기에 민감하므로 너무 향을 진하게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 모임에 필요한 준비물을 모은다. 각 모임에는 그 모임에 특히 적합한 자료들이 열거되어 있다. 어떤 준비물은 선교학교에서 제공되겠지만, 보통 기본적인 준비물들을(가위, 마커, 공작용 종이) 가지고 있다가 인도자 지침서에 없는 추가활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
- 각 모임에 제안된 성경 구절과 음악을 미리 살펴본다. 당신이 사용할 것을 골라놓는다. 어떤 곡을 잘 모르면 도움을 청하거나 더 잘 아는 것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인도자 지침서에 소개된 노래들의 사용허가를 받아 두었지만, 만약에 다른 찬송가나 곡이나 가사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 화면이나 종이에 저작권 내용을 표시하고 허가를 받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만약 당신이 찬송가나 노래집을 사용한다면 법적인 요구는 충족된 것이다.)
- 모임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동안 일지를 쓴다. (참가자들에게도 일지를 쓰라고 초청한다.) 일지나 혹은 일기를 쓰는 전통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역사의 일부이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 생각을 일지에 적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초가 되었다. 각 모임에서 당신과 참가자들이 읽은 것, 그리고 붙여놓은 질문들에 대한 생각들을 적을 기회들이 많다. 참가자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이 공부와 관련된 새로운 일지에 적도록 장려하거나 이미 적고 있는 기존 일지에 적으라고 한다.
- 참가자 목록을 받는 즉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당신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첫 모임 전에 교재를 읽어 오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성경책이나 필기 용품들을 포함해서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사용할 기본 자료들을 가져오라고 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집에서 흠을 가져오라고 부탁한다. (적은 플라스틱 봉지에 4-6 밥 숟갈 정도의 흠을 담아오면 된다.) 첫 모임이 끝날 때 그 흠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시각장치를 만들기 위해 투명한 용기에 담길 것이다.

땅과 관련해서 책임감과 의존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흙을 담은 용기는 후속 모임에서 사용된다.

다른 준비로는 교실 꾸미기와 공부 참가자들과 서로 돌보고 비밀을 지켜 주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각 모임에서 모든 사람의 참여가 존중되도록 확인한다. 그룹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그 그룹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짐한다.

교실 배치

배움을 최대화하는 분위기는 참가자들에게 편안한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헌할 기회를 주도록 교실을 꾸며야 한다.

모든 참가자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신과 그룹 구성원들에게 해 보라: 모두가 들을 수 있는가? 스크린이나 껍도가 당신에게 잘 보이는가? 당신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가령 주변의 소리들(전구에서 나는 소음, 난방 혹은 냉방 시설에서 나는 잡음, 외부의 소리-누가 잔디를 깔고 있나?)을 염두에 둔다.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혹은 조용하게 말할 수 있는지, 또는 디브이디(DVD)나 음악 시디(CD)의 소리 조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음 질문들도 고려해서 확인한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가? 방에 조명이 얼마나 밝은가? 자료들을 얼마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는가?

노트: 선교학교 교장은 등록지에 참가자들의 특별 요구 사항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공부 인도자와 함께 나눌 것이다.

수업 시간에 모든 사람의 참가를 장려한다. 그러나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즉석에서 나누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공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한다. 참여를 독려하는 한 가지 방법은 ‘1분 증언’이라는 방법이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생각을 정해진 시간 안에 나누라고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해서 요점만 말한다; 둘째,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는다. 사람들은 언제 그 사람이 결론으로 생각을 이끌어 갈지 (아니면 결론이 있거나 한 건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누구도 강제로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혼자 대화를 독점해도 안 된다. 그룹 대화를 위한 추가 제안으로 부록 A를 참조한다.

물리적인 공간 사용 측면에서도 전체 공간이 배움을 위해 쓰여야 한다. 천장이나 벽에 배울 내용을 달아 둔다 (추천된 접착제를 사용할 것). 배울 내용을 바닥에 깔아둔다. 의자 배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U(u)자 모양의 배치가 가르치고 대화하는 데 좋다.

자료들을 어떻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둔다. 책, 준비물, 자료집 중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가깝게 둔다. 테이블은 몇 개나 쓰는가? 전기 기구가 필요한가? 선교학교에 차로 가면, 작고 접을 수 있는 테이블과 다양한 색의 테이블 보와 향이 나지 않는, 아니면 전지로 켜는 초를 준비해 가는 것도 좋다.

공간이 있으면 여러 장소를 배움과 목상을 위해 지정해 둔다. 세 개나 네 개의 의자를 놓고 참가자들이 서로 대화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시디(CD) 플레이어와 이어폰(earphones)을 배치해서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지정된 장소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움의 스타일에 맞출 수 있다.

돌봄이 있는 교실

공부 인도자로서, 당신은 선교학교 교재가 각 참가자에게 다양한 반응과 기억들을 불러일으킬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가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공부에 참여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처음 모임에서 같이 정할 것을 추천한다. 아래에 교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예로 적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모든 참가자는 귀하다.
- 모든 사람이 말할 권리가 있다.
- 누구도 자기 목소리나 행동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 누구도 다른 참가자의 말과 관심을 무시할 수 없다.
- 교실 안에서 이야기된 것은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누구의 이야기도 당사자 허락 없이는 나누지 못한다.
- 모든 사람을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대한다.
- 전자 기기는 수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 치워둔다—그렇지 않으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

이 공부를 인도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 자기 돌봄과 건강과 온전함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놀라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 섬겨 주어서 고맙다.

제 1장

거룩한 창조

마음 모으기

“우리가 모든 생명의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는 먼저 전체 창조세계와 상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 .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와 조화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다.”¹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온전함을 포용하기, 1장).

모임의 목표

모든 창조세계와 우리의 언약 관계를 탐구하면서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문제들을 지적해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룰 방법들을 모색한다.

준비물

- 화분용 흙 한 봉지와 다른 종류의 흙 (참가자의 흙이 모자라면 보충해 줄 것)
-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공정하고 친화경적이 되기 위한 13가지 원칙들(United Methodist Women's 13 Principles to Be Just, Be Green). 부록 B에 있음.
- 성경책
- 사각형 종이 조각을 붙여 큰 종이를 만드는데 쓸 투명한 테이프
-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그리고 <더 페이스 위 싱>(The Faith We Sing)

- 일지
- 랩톱 컴퓨터/인터넷 접속/벽에다 화면을 비출 도구들
- 흙을 담은 큰 투명한 화분이나 용기 (2-3 리터) (둘째 모임에서도 사용할 것)
- 마커/크레용/색연필
- 벽에 낙서하는데 쓸 큰 갱지나 도안용지에 제목은 이렇게 쓴다: “거룩함은...”
- 종이로 만든 발자국 모양들
- 헌신의 쿨트 만들 때 쓸 사각 종이들
- 과월호 <리스판스>(response) 잡지들
- 온라인에서 “사과 데모: 지구의 귀중한 토양(The Apple Demo: Earth’s Valuable Soil)”과 “사과 같은 지구(Apple as Planet Earth)”를 미리 검색해서 준비한다. www.soils4teachers.org/lessons-and-activities (준비물로는 껍질을 까지 않은 큰 사과, 잘 드는 칼, 도마가 필요함)
- 예배 장소 준비물 (옷감, 자연에서 얻은 물품, 향 없는 초 등)

준비

- 낙서할 수 있는 벽을 준비한다: 참가자들이 편하게 마커로 쓰거나 스티키 노트(sticky notes)를 붙일 수 있는 장소에 도안 용지나 갱지를 걸어둔다. 제목을 써놓는다: “거룩함은...” (이 낙서 벽은 나중 모임에서도 사용될 것이다.)
- **1분 중언**이 말할 세 가지 내용을 벽에 비추거나 적어 놓는다 (부록 A를 참조). 즉, 이름, 편하게 느끼는 장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내가 사랑하는 땅/혹은 살아 있는 생물은...”
- 토론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벽에 비추거나 갱지에 써서 준비한다.
- 예배 장소를 만들고 폐회 예배 때 쓸 흙담은 투명한 용기를 마련해 둔다.
- 발자국 모양으로 자른 종이를 준비해 두었다가 깊이 파고들기: 본문 탐

구에 나오는 지속가능성으로 가는 발자국 활동을 할 때 사용한다. 부록 B에서 찾을 수 있는 ‘공정하고 친환경적이 되기 위한 13가지 원칙 (13 Principles to Be Just. Be Green.)’을 벽에 비추거나 적어 놓는다. 교실 벽까지 가는, 혹은 테이블을 따라 걷는 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 헌신의 시간에 사용할 사각 종이를 켈트에 알맞은 크기로 준비한다. 사각형을 다 연결할 정도로 넓은 공간과 투명한 테이프를 준비한다.
- 온라인에서 “사과 데모: 지구의 귀중한 토양(The Apple Demo: Earth’s Valuable Soil)”과 “사과 같은 지구(Apple as Planet Earth)”를 미리 볼 것. www.soils4teachers.org/lessons-and-activities. (시범을 보려면 깎지 않은 큰 사과와 잘 드는 칼, 그리고 도마가 필요할 것이다.)

모이는 시간

참가자들이 방에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마커나 스티키 노트(sticky notes)로 낙서 벽에 적힌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권유한다. 공부 중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과 개념들을 모임 마지막에 이미 적은 문장에 첨가하라고 부탁한다.

환영과 소개: 1분 증인 (20분)

참가자들에게 방의 배치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환영하고 “1분 증인”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인다. 즉, 이름을 말하고, 본인이 편하게 느끼는 장소를 말하고, 다음 문장을 완성하면 된다: “내가 사랑하는 땅/혹은 생물은...”

토론 규칙 (10분)

함께 공부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하고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든다. 인도자가 기본 규칙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자기들의 기대 사항을 나눈다. 상호 존중, 비밀 준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참여를 강조한다. 규칙을 모든 참가자가 보고 지킬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거나 갱지에 써서 붙여 놓는다.

개회 예배 (15분)

교독문: <연합감리교회 예배서> (*Book of Worship*) 425쪽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합니다.
모든 빛나는 소나무 잎들, 모든 모래사장,
깊은 숲속의 모든 안개와,
모든 빈터와 웅덩이는 벌레들이 거룩합니다.

바위투성이의 산등성이, 초원, 짐승들과 사람들
모두 같은 가족에 속합니다.
자녀들에게 땅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가르치세요,
땅에 닦치는 일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땅의 자녀들에게도 닦칩니다.
우리는 땅의 일부이고, 땅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강들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향기나는 꽃들은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숨을 나누어 쉬기에 공기는 귀중합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에게 숨을 주었던 그 바람이
그들의 마지막 한숨도 거두어 갔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땅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가족을 연결해 주는 핏줄처럼, 만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긍휼함은 만물에 고루 미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속의 한 줄입니다.

우리가 그 그물에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물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원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처:〈연합감리교회 예배문집〉, 425쪽. (19세기 미국 원주민인 시애틀 추장의 영감을 받아 적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찬양: 주님 찬양하세 (*Cantemos al Señor*)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149장.

출처: 주님 찬양하세 (“*Cantemos al Señor*”) 작사 작곡 칼로스 로자스(Carlos Rosas); 편곡: 라켈 모라 마티네즈(Raquel Mora Martinez) ©1976, 리소스 퍼블리케이션(Resource Publications Inc.); 영어 번역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편곡 ©1983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오씨피 출판(OCP Publications). 허가번호 원라이센스(OneLicense) #A-709087.

숨쉬기 동작: “나무와 같이 숨 쉬는 기도,” <하나님의 풍성한 정원: 기후 후 정의에 관한 어린이 교재> (*God’s Extravagant Garden: A Children’s Study on Climate Justice*)²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인도한다:

오늘 첫 모임을 시작하면서 선교학교의 어린이 교재인 <하나님의 풍성한 정원>에서 채택한 숨쉬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눈을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멈춤)

다음 숨을 쉬실 때, 들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키신다 생각하고, 날숨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을 불러 내보내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을 불러 내보내고요.

이제 눈을 뜨세요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은 지구의 식물들이 내쉬는 숨과 교환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실 때, 나무가 주는 산소를 마셨고요, 우리와 모든 동물들은 이 산소로 숨을 쉬지요. 식물들이 산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니다. 우리는 동시에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요. 식물이 사는 데 필요한 탄소를 줍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 “성령의 은사(Breathe on Me, Breath of God)”를 악기가 연주하는 곡을 틀어 놓고 가사 본문을 읽어준다.

이것을 옆두에 두고 다시 숨을 쉽시다.

“나무에서 숨을 받아 쉽니다.”

“나무를 위해 내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내쉽니다.”

(반복)

깊이 파고들기: 본문 탐구 (30분)

참가자들에게 교재의 1장을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와 창조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신학적 및 성경적인 기반을 이해해 보라고 한다. '마음 모으기'를 큰 소리로 참가자들에게 읽어주고, 그 본문을 다 같이 탐구하자고 초청한다.

마음 모으기

“우리가 모든 생명의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는 먼저 전체 창조세계와 상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 . 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와 조화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다.³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하다” (<온전함을 포용하기>, 1장에서).

참가자들이 다음 활동 중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들을 노트에 쓰도록 한다. 그러나, 참가자용 지침서에 나오는 모든 활동은 그룹이 다 같

이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부록 A 참조).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각 소그룹에서 적어도 한 사람을 정해서 각 활동에 관해 전체 모임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1. 제 1장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창조 이야기 중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라.
2. 제 1장의 “인구와 소비”를 읽고, 기후 변화로 가장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 사역, 그리고/혹은 소비 감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 단계를 적어 보라. (부록 B에 나오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공정하고 친환경적이 되기 위한 13가지 원칙들’을 참조할 것.) 자신이 택할 첫 단계를 골라서 발자국 모양의 종이에 적은 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체 모임의 오솔길을 만들어 본다.
3. 제 1장, “장소의 신학을 세우는 일”를 읽어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소를 만들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 당신의 장소를 생각해 보고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창조세계를 돌볼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 당신은 어떻게 지역에 사는 인간 및 모든 창조물의 소외된 목소리들을 존중할 것인가?
4. 제 1장의 ‘인간 중심 주의에서 상호성의 신학으로 바꾸기’를 다시 읽어 보라. 당신의 장소와 관련된 한 가지 활동을 적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상호성으로 옮겨 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라.
5. 제 1장에 나오는 도미니카 수녀 제이미 티 펠프스(Jamie T. Phelps)가 말하는대로 우리가 자연 재난이 가난한 사람들을 일회용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들을 눈에 뜨이지도 않는 존재로 취급했음을 지적한 ‘죄에서 언약으로’라는 개념을 살펴보라. 당신이 사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를 적어보라. 모든 이들을 위한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웨슬리의 지혜 (10분)

스톤사이퍼(Stonecypher)는 요한 웨슬리의 로마서 8:19-22에 관한 설

교문을 인용한다(‘인간중심주의에서 상호성의 신학으로,’ 제 1장). 참가자들에게 “창조세계를 노예 상태와 부패로부터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을 의논하게 한다.

헌신의 시간 (15분)

제 1장의 ‘죄에서 언약으로’ 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단락을 참가자들과 나누라. 세 명에서 다섯 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참가자들에게 라스무센(Rasmussen)의 ‘기대 공동체’라는 개념과 제 1장 마지막의 ‘성공을 위한 단계들’을 토론하게 한다. 각 그룹은 공동 목표를 정한다. ‘성공을 위한 단계들’에 초점을 두고 주어진 자료로 켈트 조각들을 만든다. (부록 B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13가지 원칙들을 자료 중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과월호 <리스판스> 잡지도 도움이 된다.) 참가자들이 사각형을 연결해서 만든 켈트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흙을 돌보는 일 (10분)

스톤사이퍼(Stonecypher)는 흙과 모든 창조세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이야기로 이 교재를 시작했다. 참가자들에게 서론과 제 1장에 포함된 흙과의 다양한 연결을 이야기하라고 격려한다. 참가자들에게 흙을 소개 하면서, “사과 데모: 지구의 귀중한 토양(“The Apple Demo: Earth’s Valuable Soil”) 활동이나 “사과 같은 지구(Apple as Planet Earth)” 예를 사용한다.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 있다. www.soils4teachers.org/lessons-and-activities. 흙과 관련된 추가 활동은 같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흙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자들에게 마치는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온 흙을 투명한 화분/용기에 차근차근 한 명씩 넣도록 한다. 그 흙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상징한다. 흙은 또한 지구와 관련된 우리의 책임과 의존성을 상징한다. 흙을 가지고 오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해 여분의 흙을 준비한다. (흙담는 용기는 둘째 모임에서 사용할 것이다.)

폐회 예배 (10분)

찬양: “나는 너의 엄마다,” <더 페이스 위 싱>(The Faith We Sing). 2059장

출처: “나는 너의 엄마다,” 작사 셸리 에레나 머레이(Shirley Erena Murray) ©1996.

홉 퍼블리싱(Hope Publishing Co.); 작곡 퍼 할링(Per Harling). ©1996. 총회 세계 선교부, 지비씨 뮤직(GBC Musik). 씨씨엘아이 라이선스(CCLI License) #11221925.

기도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이성을 순결케 하시고, 우리의 뜻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가 모든 창조세계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평화를 이루며, 희망을 실천하며, 삶을 선택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⁴

다음 모임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모임 동안 예배 처소에 들 꽃이나 채소 씨 한 봉지씩을 가져오라고 부탁한다.

후주

1. 제이 클린턴 맥칸 주니어(J. Clinton McCann, Jr.), “시편: 서론, 주석, 그리고 묵상,” 4 권 <뉴 인터프리터즈 바이블>. 리더 이 케흐(Leander E. Kech) 편집 (내쉬빌: 아빙돈 프레스, 1996), 774쪽.
2. 팻 호르트(Pat Hoerth), <하나님의 풍성한 정원: 기후 정의에 관한 어린이 교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016), 13쪽.
3. 제이 클린턴 맥칸 주니어(J. Clinton McCann, Jr.), “시편,” 774쪽.
4. 연합감리교회 총회 감독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창조세계: 희망과 행동에의 부르심,” 목회 서신, 2009, <http://hopeandaction.org/main/wp-content/uploads/2010/03/Pastoral-Letter-Eng-Handout-2-col.pdf>.

거룩한 공동체

2

마음 모으기

“우리는 삶의 의미를 모두 다르게 찾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삶을 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온전함을 포용하기》, 제 2장).

모임의 목적

우리를 만든 흙이 어떤 흙인지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의 친구들을 위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근원과 생명의 핏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서로 나누고자 한다.

노트: 우리가 하나 이상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원해왔을지도 모른다.

준비물

- 여러 종류의 꽃이나 채소 씨 봉지 (한 사람에게 하나씩)
- 성경책 (성경 봉독용)
- 파란색 페인트들이 쓰는 테이프
- 빈 포도주병
- 풀 (나무 페인트 젖는 막대기에 종이를 붙이는데 쓸 것)
- 화분용 흙 (채소와 꽃씨를 심는데 쓸 것)
- 투명한 흙담은 용기 (첫 번 모임 때 쓴 것)
- 마커/크레용
- 페인트 젖는 막대기 (페인트 상점에 가면 많이 줌)

- 종이 접시
- 펜/연필
- 평범한 3" x 5" 인덱스카드
- 낙서용 벽에 붙일 큰 갱지에 이런 제목을 써 붙임: “내가 감사하는 것들”
- 대화 규칙을 적은 종이를 붙여 놓을 것
- 더 기쁜 삶을 위한 묵상 때 쓸 갱지
- 보통 종이 여러 장
- 큰 (4" x 4") 스티키 노트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사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77 장, 그리고 “태어난 모든 생명을 위해(For Everyone Born), <글로벌 프레이즈>(Global Praise), 2장

준비

- 예배 처소를 새로 꾸미거나, 첫 번 모임 때 쓴 흙 담은 화분, 페인터들이 쓰는 나무 막대기를 여기저기 바닥에 놓고, 빈 포도주병과 여러 가지 씨앗 봉지를 추가한다.
- 참가자 한 사람이 요한복음 2:1-12을 읽는다.
- 세 사람에게 촌극, “너의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라”를 연출하게 한다. 이 촌극은 참가자용 지침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 낙서 벽을 준비한다: 참가자들이 마커나 스티키 노트를 사용하기 편한 장소에 갱지를 걸어 둔다.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 “내가 감사하는 것들.”
- 갱지에 대화 규칙들을 써서 붙여 놓는다. 그 위에 노트를 쉽게 적을 수 있는 곳이면 좋다.
- “영적인 고향”의 포스터를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흙 속에 꽂아 둔다 (헌신의 시간을 참조하라).

개회 예배:

우리가 사랑을 위해 하는 일 (10분)

찬양: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77장

출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작사 작곡 스투어트 케이 하인(Stuart K. Hine). ©1953, 저작권 갱신, 1981, 만나 뮤직(Manna Music, Inc). 씨씨엘아이 라이선스(CCLI License) #11221925.

성경 (봉독자): 요한복음 2:1 – 12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성경 묵상: “너의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라,” 촌극

마리아: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뭘 좀 해야 하지 않니”하고 말했더니 마치 내가 자기를 귀찮게 하는 듯이 행동하다니. 포도주가 없지 않냐 말이야.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모금도 남지 않았다고요. 이걸 정말 제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초대할 가정을 민망하게 만드는 일이고요. 나는 신부 엄마 이마에 새겨진 주름을 벌써 볼 수 있어요. 나는 그 아버지가 안절부절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는 엄마예요. 나는 이런 일에 신경을 쓴다고요. 보세요. 내가 메시아의 생모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알지요. 그 아이에게는 위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좀 도와라, 예수야! 좀 도와주란 말이야!

인물 1: 아, 이 이야기, 이 이야기라면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알던 이야기지. 그건 기적 이야기였어요. 제일 좋은 포도주는 마지막까지 남겨둔다나 뭐라나. 오늘 좀 새로운 내용을 들었어요. 내가 내 사명, 내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내가 할 능력이 있는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이지요. 내가 꽃처럼 활짝 피워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 자랄 때가 되었습니다.

인물 2: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다른 이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필요를 보면 반응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태도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는 태도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기도

주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다른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전한 반석에서 시작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삶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칭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세상을 위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깊이 파고들기: 본문 탐구 (30분)

참가자들에게 제 2장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한 삶의 신학적 및 성경에서 말하는 기반을 이해하게 한다.

‘마음 모으기’ 부분을 크게 읽는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모두 다르게 찾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삶을 살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온전함을 포용하기> 제 2장). 참가자들에게 지침서에 있는 질문 중 적어도 세 개의 질문에 한두 문장으로 답을 적으면서 그 장을 탐구하라고 한다.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하려면, 한 질문은 모든 사람이 답하게 하고, 나머지 두 질문은 각자 골라서 답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참가자들이 일지를 쓰거나 노트를 하면 자기 답을 거기에 써도 좋다; 누가 노트를 적기 위해 연필이나 종이가 필요한지 꼭 물어보라.)

1.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로 자기 삶이 복잡해졌을 때의 경험을 서로 나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기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허락했듯이).

2. 본인이 한때 속했다고 느꼈던 공동체에서 소외 된 느낌이 들게된 때의 경험을 서로 나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3. 새로운 공동체에서 “장소 만들기”에 참여한 사람, 혹은 한때 버렸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 사람(본인 이외의)이 그룹에 있는지 찾아본다. (제 2장, “공동체의 거룩한 뿌리들’에 나오는 제이버 크로우 (Jayber Crow)이야기를 참조).
4. 당신의 예배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당신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가 (찬양, 설교, 성경, 커피 시간 등)?
5. 당신은 극진한 환대를 어디에서 보았나(집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학교에서)?
6. 우리가 집착하는 개념들로는 무엇이 있는가(나는 지독한 실패자다; 나는 조직적이다; 나는 재정 전문가다; 나는 이 과제중을 줄일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7.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더 성숙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할 일 한가지는 무엇인가? 한마디 더 할 말은? 한 군데 더 가야 할 곳은? (제 2장의 “공동체 내의 자비와 정의의 사역들”을 참조)

서로 나눈다: 참가자들이 두세 명의 소그룹으로 만나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자신들의 대답을 나누게 한다. 전체 모임에서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나누도록 한다.

참가자들의 응답을 이 장의 내용과 연결한다. 자기들이 현재 공동체의 건강과 온전함에 헌신하는 일을 더 강화하거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면, 6번 질문에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에 대해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새롭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도록 권면한다

웨슬리의 지혜 (10분)

참가자들에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의 성찬의 역할에 대한 요한 웨슬리

의 생각을 적은 본문을 다시 읽게 한다 (제 2장, ‘성찬과 거룩한 공동체’). 거기 적힌 성찬을 받는 효과를 나열해 준다. 참가자들에게 그 효과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하게 한다. 아니면, 자신의 삶에 없는 효과를 찾아보게 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게 한다.

성찬식과 거룩한 공동체의 탐구 (25분)

저자는 우리가 성찬을 위해 모일 때 누구도 제외되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제 2장, ‘공동체 내의 자비와 정의의 사역들’ 부분에서 스톤사이퍼 (Stonecypher)는 이렇게 말한다 (교실에서 크게 읽어줄 것):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명을 주는 성찬식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한다. 아무도, 심지어는 배반자 유다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 말은 살인자 이세벨에서부터 의심 많은 도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성찬식에 초대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유다”를 상징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생각해 보라—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당신의 삶 속에서 행동이나 혹은 말로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

노트: 당신이 생각한 배신자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에게 베푸는 배려의 표시이다.

예수님과 “유다”의 아침식사

모든 참가자에게 종이 접시와 마커를 준다. 그들은 예수님과 “유다”와의 아침 식사에 초대되었다. 참가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다”를 의미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초청할 수 있다 (친구인 척하면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 모두가 환영을 받는 자리인데 그들은 누구(배신자)를 아침 식사로 초대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확장하고, 강화하고, 치유할 것인가?

참가자들에게 접시 중앙에 그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이름)을 적게 한다. 접시 주변에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적어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노트: 실제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참가자에게는 예수님과 배반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준다.

참가자들이 접시를 다 준비한 후, 넷 혹은 다섯 명의 자원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를 그 거룩한 식탁에 초청했는지를 나누게 한다(1분 이내로). 그리고 지정한 자리에(벽이나 빈 테이블) 접시 모두를 식탁에 자리를 마련하는 식으로 원이나 사각형으로 놓는다. 휴식시간 동안 테이블에 그림이나 혹은 다른 물품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장식하게 한다.

그런 후, 아래와 같은 말을 나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 잠시 멈추고 하나님에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좀 더 예수님처럼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그러면,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 “모든 태어난 이들을 위해,” <글로벌 프레이즈>(Global Praise) 2쪽

출처: “모든 태어난 이들을 위해,” 작사 쉐리 에레나 머레이(Shirley Erena Murray) ©1998, 홉 퍼블리싱(Hope Publishing Co.); 작곡, 퍼 할링(Per Harling) ©2000. 톤 비스 프로덕시온 에이비/퍼 할링(Ton-Vis Produktion AB/Per Harling). 씨씨 엘아이 라이선스(CCLI License)#11221925.

행복과 사회적 책임 (10분)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행복에 관해 저자가 말한 것을 서로 나누게 한다. 특히 베네딕트 수녀인 요안 치티스터(Benedictine Sister Joan Chittister)가 제 2장, “행복과 사회적 책임”에서 말한 부분을 언급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참가자들에게 물어 보라. 한 사람에게 참가자들의 생각들

을 갱지에 적고 교실에 붙여둘 것을 부탁한다. 그룹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속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키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감사의 벽 만들기 (15분)

치티스티(Chittister)는 얻은 물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감사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한다; 교재 제 2장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보라. 스티키 노트를 각 참가자에게 나누어 준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적으라고 한다. 각자 자기들이 노트에 쓴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읽은 후, 낙서 벽에 “내가 감사한 것들”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붙인다(원하면 학생들이 갱지 위에 마커로 직접 쓸 수도 있다. 이 나눔의 시간 동안 자기들이 벽에 적은 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헌신의 시간: 내 발밑의 흙 (20분)

“영적인 고향”이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자신의 발밑의 흙을 표시한다. 각 참가자에게 페인터들이 쓰는 막대기와 두 개의 인덱스카드를 준다.

카드 하나에는 모든 참가자가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태어난 주나 나라를 쓰게 한다. 두 번째 카드에는 자기들이 출생한 영적인 고향을 적으라고 한다. “영적인 고향”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준 사람들과 장소로서, 상징적으로 당신의 믿음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준 토양을 제공해 준 곳이다.

그곳은 당신의 고향 교회일 수도 있고 대학 시절의 경험(믿음을 실천하는 모임에 참여한 경우)일 수도 있고 가족들과 지낸 시간(가령 잠자리 들기 전의 기도 혹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축하잔치에서 드린 기도)일 수도 있다. 또, 배움의 경험(독서, 수양회 참가, 혹은 음악회 참석) 일 수도 있다.

참가자들에게 페인터들이 쓰는 막대기에 카드를 풀로 붙이게 한다(인도자가 미리 만든 완성된 포스터를 보여줄 것).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혹은 당신이 지목하는 대로, 각 참가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막대기를 흠에 꽃으면서 “내 이름은 _____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교회 혹은 주), 혹은 이 사람은 (개인의 이름) 내 발밑의 흠을 대표합니다”라고 말하게 한다.

모든 참가자가 이 활동을 나눈 후, 그룹이 제단 위에 있는 물품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이 이 모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토론하게 한다 (가령 흠은 우리의 뿌리와 근거를 상징한다; 씨앗 봉투는 우리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상징한다; 빈 포도주병은 성찬식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다른 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함께 함을 상징한다).

폐회 예배

기도 (한목소리로)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친절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곳에서 주님이 명하신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3장 거룩한 자아

마음 모으기

“우리는 ‘신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창조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동역자의 책임과 위치를 주셨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만 인정받고 우리 창조주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거룩한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온전함을 포용하기,〉 제 3장).

모임의 목표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묵상하되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준비물

- 성경
-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더 페이스 위 싱〉(*The Faith We Sing*)
- 일지
- 랩톱 컴퓨터/인터넷 접속 가능성/프로젝트 기구들
- 마커/크레용/색연필
- 가면 만들 자료: 종이 접시, 가위, 파이프 클리너, 줄, 종이에 구멍 뚫을 펀치, 마스킹 테이프, 팝시클 막대기
- 낙서 벽을 만들 갱지에 “안식일이란...”이라는 제목을 적어 둔다.

- 안식일의 축복을 위한 종이 그리고/또는 인덱스카드와 상징물들
- “너 성결키 위해” 가사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95장
출처: “너 성결키 위해.” 작사 윌리엄 디 롱스태프(William D. Longstaff), 작곡 조지 씨 스테빈스(George C. Stebbins), 1880년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95장. 공공 사용 가능.

준비

- 낙서 벽을 준비한다: 참가자들이 마커로 쓰거나 스티키 노트를 붙이기 편한 장소에 갱지를 걸어둔다. 제목을 적어 둔다: “안식일이란...”
- 찬송가를 준비하거나 “너 성결키 위해”라는 찬송의 가사를 붙이거나 벽에 비춰준다.
- 안식일 축복의 예를 묘사하는 슬라이드 혹은 갱지를 준비한다.
- 예배 처소에 안식일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배치하고 폐회 예배 때 쓸 시각자료들을 둔다.
- 가면 자료들을 준비하고 완성된 마스크 본보기를 준비한다. 가면은 얼굴 전체 혹은 일부를 가릴 수 있게 한다. 종이 접시에 눈이 나올 구멍 두 개를 뚫는다. 가면은 두 쪽을 장식하는데 헌신의 시간에 나온 지침대로 한다. 가면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파이프 클리너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줄로 묶어서 쓸 수도 있고 팝시클 막대기를 붙여서 얼굴 앞에 손으로 들고 가릴 수도 있다.

개회 예배 (10분)

기도 (한목소리로): <예배와 찬양 예배 자료집>(Worship and Song Worship Resources), 69쪽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심지어는 젓먹이들도 별과 달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온 땅위에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아멘.

출처: 리차드 에슬링어(Richard Eslinger)의 기도 ©2006. 다락방 도서(Upper Room Books)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찬양: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 <더 페이스 위 싱>(The Faith We Sing), 2060장

출처: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 작사 존 톰버그(John Thornburg). 작곡 아만다 후스 버그(Amanda Husberg). ©1996 아빙돈 프레스. 원라이선스(OneLicense) #A-709087.

교독문: 시편 8,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743쪽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널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짐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출처: 요한 제이 슈츠(Johann J. Schultz); 영어번역 프랜시스 이 콕스(Francis E. Cox).

공공 사용 가능. 한국어 번역 (표준 새번역 성경)

깊이 파고들기: 본문 탐구 (30분)

참가자들에게 제 3장의 본문을 탐구하는 과정을 시작하라고 초대한다. 거룩한 자아와 자신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 ‘마음 모으기’를 크게 읽으면서 시작한다.

마음 모으기

“우리는 ‘신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창조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동역자의 책임과 위치를 주셨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만 인정받고 우리 창조주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거룩한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온전함을 포용하기,〉 제 3장).

참가자들에게 다음 활동 중 두 가지를 골라서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한다. 그들의 응답을 소그룹 안에서 나눌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부록 A에서 다른 나눔의 방식을 고른다.

1. 제 3장에서, 스톤사이퍼(Stonecypher)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삶에 창조성과 놀이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당신이 즐기는 놀이의 예를 들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말해 보라.
2. 스톤사이퍼(Stonecypher)에 의하면, “안식일은 치유와 쉼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수반한다” (제 3장). “너 성결키 위해”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95장)의 가사를 생각해 보라. 안식일을 대표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안식일 축복을 써 보라. 안식일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나 창조세계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식사를 위한 것이나 의식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아래에 적힌 안식일 축복의 한 예를 참조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쉬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맑게 하시기를 빕니다.¹

3. 제 3장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와 “창조세계와 공동체의 눈으로 사랑하기”라는 부분에서 저자는 어떻게 자기 자식과의 관계가 자기 사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었는지를 나누고 있다. 그 부분을 읽고 자기 사랑의 여정을 새로이 깨닫게 해 준 통찰이 있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적어 보라.

웨슬리의 지혜 (10분)

저자는 제 3장의 “타락은 여전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라는 부분에서 웨슬리의 신학과 전통을 상기시킨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기독교인의 완전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나누도록 권면한다.

자기 돌봄의 예 (20분)

제 3장 “자기 돌봄과 안식”이라는 부분에서 스톤사이퍼 (Stonecypher)는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s)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논의한다. 브루그만(Bueggemann)의 안식일 개념을 지침으로 참가자들에게 안식일의 정기적인 계획을 그룹별로 혹은 혼자서 세워 보도록 하라. 이때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을 균형 있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신의 시간: 가면을 벗고 생활하기 (30분)

참가자들에게 제 3장의 “정체성과 소명”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주변에 쌓아온 “합리화의 벽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각 참가자는 종이 접시로 가면을 만든다. 가면 한쪽에는 온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정체성을 표현한다. 가면 다른 쪽에는 우리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쓴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참가자들은 부록 A에 나오는 내부-외부 동그라미(Inside-Outside Circle)를 사용할 수도 있다.

폐회 예배 (20분)

찬양: “와서 조용한 곳을 찾아라,” <더 페이스 위 싱>(The Faith We Sing), 2128 장, 또는 “달려도 지치지 않으리,” 2281장

출처: “와서 조용한 곳을 찾아라,” 작사 쉐리 에레나 머레이(Shirley Erena Murray). ©1992. 홉 퍼블리싱(Hope Publishing Co). 작곡 (알려진 사람): 비에프 화이트(B.F. White). 공공 사용 가능. 씨씨엘아이 라이선스(CCLI License) #11221925; “달려도 지치지 않으리,” 작사 작곡 핸드트 한슨(Handt Hanson)과 폴 무라카미(Paul Murakami). ©1991. 변하는 교회 포럼(Changing Church Forum, Inc.). 씨씨엘아이 라이선스(CCLI License) #11221925

기도

참가자들에게 안식일 축복과 안식일의 시각적인 표현을 나누라고 권한다. 나눈 후 축복과 시각적 표현물들을 예배 처소에 배치한다.

후주

1. 매튜 슬리스 의학박사(Matthew Sleeth, M.D.), 24/6: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처방> (내쉬빌: 턴데일 하우스 퍼블리셔, 2012).

제 4장과 제 5장 언약의 삶 - 실천하면 된다!

마음 모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통은 하나님의 세상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분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다”(《온전함을 포용하기》, 제 4장).

모임의 목표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고 우리가 현재 속하는 언약 공동체의 전통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본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공동체를 세우고 강화하는데 그 경험들을 사용하도록 강조한다.

준비물

- 전지로 작동하는 초
- 성경
- 성구 사전
- 파란색 페인터들이 쓰는 테이프
- 인덱스카드 (4" x 6") 아니면 반으로 자른 공작용 종이
- 마커/크레용
- 낙서 벽을 만들 갱지. 제목: “언약의 삶”
- 사인 만들때 쓸 갱지 혹은 정육점에서 쓰는 종이: “영웅들의 복도”
- 펜/연필

- 흙 화분과 씨앗 봉지들 (이전 모임들에서 사용한 것)
- 여러 장의 종이
- 작은 재활용 봉지들
-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시온의 노래집>(The Songs of Zion)

준비

- 예배 처소를 준비하든지 다음 내용을 예배 처소에 더한다: 흙 화분, “지리적인 장소”라고 쓴 플래카드; 각 종 씨앗 봉지; 초.
- 두 명의 자원봉사자들(기자 한 명과 노아)에게 “노아(Noah)와의 인터뷰”라는 촌극을 부탁한다.
- 자원 봉사자 한 명에게 셀레스터 세베지(Celeste Savage)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게 한다.
- 개회 예배 때 어떤 노아(Noah) 주제 노래를 부를 것인지 정해 놓는다. 여러 찬송가와 찬양곡 집 안에서 노래를 찾아보고 아는 노래를 고른다. “40주야(Forty Days and Forty Nights)” 라는 곡을 고를 수도 있다(⟨당신의 팔로 온 세상을 안아봐요: 어린이들을 위한 전세계 곡과 활동들⟩ 참조); “누가 방주를 지었나?” (옛날 캠프 송); 또는 영가도 좋다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네.”
- 낙서 벽을 만든다: 참가자들이 마커로 쓰거나 스티키 노트를 붙이기에 편한 장소에 갱지를 건다. 제목: “언약의 삶.”
- “영웅들의 전시장”라고 하는 표지판을 건다.
- 헌신 카드를 만든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살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강화하기 위해서 할 일 한 가지를 적으라고 한다.
-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토론 참여 규칙을 붙여 놓는다.

개회 예배 (15분)

찬양: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관련된 노래를 하도록 인도한다. 아니면 참가자 중 그룹에 가르칠 수 있는 다른 노래가 있는지 물어본다.

“노아와의 인터뷰” 촌극

기자: 당신은 무얼 하고 있는거죠? 지금 수년째 망치질만 계속하시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거죠?

노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자: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제 말씀은 당신이 그저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나뭇조각을 그저 붙이고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웃는다는 것이지요.

노아: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다가올 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자: 비가 뭐죠? 그런 단어는 처음 듣습니다.

노아: 저는 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밤새 풀잎에 내리는 이슬은 알아요. 아마 그것과 비슷한 무엇이 아닐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슬 같은 것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자: 아, 그렇군요. 제가 당신에게 더 어떤 정보를 얻을 것 같지는 않네요. 당신은 그저 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네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아: 나는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지요. 내가 바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터뷰를 들은 후 그룹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몇 번 깊은 심호흡을 하라고 한다. 노아의 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생각해 보라.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신들이 본 사건이나) 그들이 혹은 누군가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삼 분 생각할 시간을 준다.)*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만약 자원하는 이들이 없으면 인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찬양 (하나를 선택):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 주시네,” <시온의 노래집> (*Songs of Zion*), 69 장;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 <시온의 노래집,> 14 장;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67 장.

출처: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 주시네,” 작사 작곡: 찰스 에이치 가브리엘 (Charles H. Gabriel). ©1949, ©1953. 편곡: 제이 제퍼슨 클리블랜드(J. Jefferson Cleveland). ©1981. 모든 권리가 아빙돈 프레스에 있음. 아빙돈 프레스/유엠 퍼블리싱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나는 주님을 신뢰하리,” 작사 작곡: 제이 제퍼슨 클리블랜드(J. Jefferson Cleveland). ©1981, 아빙돈 프레스. 씨씨엘아이 라이선스(CCLI License) #11221925.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길은,” 작사 존 에이치 삼미스(John H. Sammis); 작곡 다니엘 비 타우너(Daniel B. Towner), 1887. 공공 사용 가능.

기도 (한목소리로)

주님, 노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구원 역사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 노아의 이야기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거룩하고 박력 있는 공동체를 세워 서로 보살피며 죄악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깊이 파고들기: 본문 탐구 (30분)

참가자들에게 제 4장과 5장 탐구 과정을 시작하라고 한다. 성경적인 전통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을 새롭게 하며, 그 전통에 따라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고 의도적인 영적 성장을 계획하라고 권한다.

‘마음 모으기’를 크게 읽는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전통은 하나님의 세상 구원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분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다”(〈온전함을 포용하기,〉 제 4장).

참가자들과 함께 4장에 나오는 “함께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훑어본다.

다음 질문들을 한다:

1.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응답에서 흥미 있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도전이 되었는가?
2. 노아는 무엇을 위해 불림 받았는가?
3. 노아가 동물들과 가진 관계는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4.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신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얻었음을 강조하라. 참가자들에게 노트북, 일지, 혹은 종이에 성경의 영웅들을 세 명에서 다섯 명을 적으라고 한다. 그 영웅들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한다. (성경 영웅들에 관한 인도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준비를 한다.)

4" x 6" 인덱스카드에 각 참가자가 성경 영웅의 이름 하나를 쓰게 하고 그와 관련된 성구를 함께 적어 보라고 한다. 테이프를 사용해서 참가자들에게 자기 카드를 “영웅들의 전시장”이라는 싸인 밑에 붙이라고 한다.

모두가 자기 영웅들을 골라 붙인 후에 무작위로 몇 개의 카드를 골라 (혹은 지적해서) 본인들에게 왜 그 성경의 인물이 자기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

노트: 만약 선정된 카드 작성자가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면 바로 다음 카드/사람으로 옮겨간다.

모두에게 제 4장에 있는 “언약의 삶과 성육신”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한다. 노트와 일지와 종이들을 사용해서 다음 질문 중 적어도 두세 개에 대해서 대답을 적으라고 한다:

1.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도전이 되었던 때는 언제였나?
2.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겠는가? 당신이 가진 단계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3. 당신이 사는 지역이나, 당신에게 중요한 지역에서 어떤 환경적인 해악을 발견하는가?
4. 어떤 환경적인 도전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미시간주 플린트(Flint, Michigan)에서 있었던 식수 위기인가? 뉴욕에서 있었던 러브 운하(Love Canal) 사건인가? 미원주민들의 거룩한 땅을 오염시킬까 하는 두려움인가—오래 전의 일들 혹은 최근에 북부 다코다 지역에 있었던 다코다 송유관 허가(Dakota Pipeline Access) 건인가?
5.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자연의 순환을 망가뜨린 죄를 지었다”라는 나티 파쏘(Nati Passow)의 주장과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죄라는 개념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스톤사이퍼(Stonecypher)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
6. 노마 위르쯔바(Norma Wirzba)가 “먹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사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²
7. 들소 농장주인인 윌 해리스(Will Harris)의 이야기는 당신이 먹는 음식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 음식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라: 참가자들에게 두 세 명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누게 한다. 전체 그룹에서 질문마다 자기들의 응답을 일 이 분 정도 나누도록 한다. (만약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도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답변을 미리 준비한다.)

묵상 (20분)

스톤사이퍼(Stonecypher)는 자기의 특권이 많다는 점을 고백한다; 참가자들에게 제 1장의 “성공을 위한 단계들”이라는 세 번째 항목을 다시 읽으라고 하거나 그들에게 다시 크게 읽어 준다. 참가자들에게 종이 한 장을 두 칸으로 나누라고 한다. 오른쪽 칸 위에는 “나의 특권들”이라고 쓰고, 자기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섯 가지를 쓰게 한다. 그리고 왼쪽 칸 꼭대기에는 “나의 도전들”이라고 쓰고 그 칸에 해당하는 것을 적어도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쓰게 한다. 인도자로서 각 칸에 본인이 예들 들 수 있는 것을 한가지씩 생각해서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한다.

참가자들 두세 명이 소그룹으로 모이게 한다. 그들에게 특권과 도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이것이 자기들이 사는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게 한다. 전체 그룹으로 모여 소그룹에서 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

웨슬리의 지혜 (10 분)

자신을 돌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의 생각을 나눈 본문을 다시 읽어 보라. (“건강한 음식과 운동”, “언약의 삶을 실천하기” 부분에 있다.) 웨슬리의 충고를 생각해 본 후 당신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들의 목록을 적어 보라. 어느 단계가 쉽고, 어느 단계가 어려울지 적어본다.

실천하기 (30분)

셀레스터 세베지(Celeste Savage)는 메릴랜드주 솔스베리(Salisbury, Maryland)에 있는 무숙자들의 대변인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참가자 한 사람이 읽게 한다):³

나는 학교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가 나무 밑에서 침낭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빌(Bill)”을 만났는데 그는 벽지를 붙이는 일을 꾸준히 했지만, 지금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의료보험도 없었다. 이 부상으로 그는 생업을 잃었고 결국에는 아파트도 잃었다. 그의 이야기는 무숙자에 대한 나의 태도를 “가서 직업을 얻어라”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을까?”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할로(HALO - Hope and Life Outreach)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일 년 내내 남녀를 막론하고 하루 잘 수 있는 숙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또, 18개월에 걸친 재활 프로그램인 희망으로의 여정(Journey of Hope); 사회 복지사와 함께하는 재활 협력 사업; 모든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무숙자들을 돕기 위한 현금을 할 수 있는 저가 시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셀레스터 세베지(Celeste Savage)의 이야기는 “어떻게 실천하는 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며 이제 우리도 같은 일을 할 때라는 것을 지적한다. 참가자들에게 제 4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삶: 장소에 뿌리내리기”와 “의미 있는 일” 부분을 다시 읽게 한다. 그리고, 제 5장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한다. 특히 삶의 규칙을 정한다는 개념과 삼위일체를 공동체로 보는 리처드 로(Richard Rohr)의 생각을 주목하라. 그룹에서 자기들이 배운 것에 대한 토론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생각들을 나누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이라는 제목 부분에 있는 일련의 질문들을 보라.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한 부분의 질문들을 고르게 한다(예를 들면, 움직임, 영양,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참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노트, 일지, 혹은 종이에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리고 이 기록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이 교재에서 나눈 도전과 통찰들에 자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돕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참가자들에게 4" x 6" 인덱스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폐회 예배를 준비한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섬기도록 부름 받은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적게 한다. 자신이 만든 헌신의 카드에서 예를 나누도록 한다.

헌신의 시간: 제단 위에 바치기 (15분)

둘째 모임에서 준비했던 흙 화분을 예배 처소에 두고 제단 공간을 준비한다. 할 수 있으면 테이블 주변에 원형으로 모은다. 초를 켜다. 잘 아는 찬송,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93장; 혹은 “나를 보내소서,”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97장 등을 부른다.

참가자들에게 한 사람씩 제단으로 헌신의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개인들에게 자신의 헌신 카드를 큰 소리로 나누도록 하고 그들이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다음 단계로 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준다.

모두 나누기를 마치면 각자에게 작은 플라스틱 수저와 재활용 가능한 봉투를 나누어 준다. 다시 제단으로 와서 수저에 흙을 넣으라고 한다. 그 흙은 이 거룩한 공간에서 자기들이 태어난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해 준다. 그들에게 그 흙이 어떤 식으로든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다(정원에 두든지, 화분에 두든지, 풀 포기 주변에 뿌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기를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제단에서 씨앗 봉지도 하나씩 가져 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30일 이내에 자신들이 그 흙을 자기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나누도록 교재 인도자 그리고/혹은 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부탁한다.

폐회 예배

기도 (다같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모두 같이 기도한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매일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유산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비전과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주

1. 프레드 반손(Fred Bahnson), <흙과 성례전:음식과 신앙의 영적인 기록,> (뉴욕: 사이먼 앤 슈스터, 2013), 206쪽.
2. 노만 위르쯔바(Norman Wirzba), <음식과 신앙: 식사的神학,> (캠브리지; 뉴욕: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 2011), 156쪽.
3. 셀레스터 세베지(Celeste Savage), 할로(HALO) 소장, 페이 윌슨 (Faye Wilson) 과 팩14(PAC 14)에 대한 인터뷰 (위코미코 카운티, 메릴랜드, 대중 채널), 2011년 10월.

부록 A

요약과 나눔의 전략

하나 주고, 하나 받기

참가자들은 자기 종이에 1번에서 5번까지 번호를 붙인다. 세 가지 생각을 적는다.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사람들과 대화해서 두 개의 추가 생각을 받는다. 자기 생각 두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준다.”

안쪽-바깥쪽 원/대화의 원

참가자들이 둘씩 짝을 짓는다. 한 짝의 한 사람은 원의 밖을 향해 서고 (이 사람은 안쪽 원에 서는 것이다) 나머지 짝은 자기 짝을 대면하고 밖의 원을 구성한다. 먼저 한 사람이 말하게 한다-원 안쪽 사람이 말하면, 바깥쪽 원 사람이 듣는다. 그리고는 역할을 바꾼다-바깥쪽 원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쪽 사람이 듣는다. 그리고 나서, 바깥쪽 원이 돌고 인도자의 지시에 따라 멈추면, 새로운 짝을 만나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섞고-짜릿고-나누기

음악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섞인다. 음악이 그치면 각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짝을 짓는다. 각기 짝과 일 분간 나눈다. 그리고 음악이 다시 시작하면 참가자들은 섞여서 새로운 짝을 찾는다.

1분 증인

이 가르치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되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균등한 시간을 주고자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가장 귀한 생각을 골라서 묵상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관리 기법의 하나인데, 자기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 되는 요점을 고르고 그것만 나누게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다음을 명심한다:

1. 자기 이야기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나누고 다음에 무엇을 나눌지를 정리하는 것.
2. 주어진 시간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타이머를 사용한다)과 30초 전 경고, 15초 전 경고-보이는 사인이나 말로-를 주어 끝낼 수 있게 하는 것.
3. 만약 시간제한을 무시하면 15초 이내 말을 끝내는 것: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분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은 “모든 분에게 골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 여기서 중단시켜야 함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짜릿고 나누기/짜으로 생각하고 나누기

참가자들이 생각하고/쓸 수 있도록 멈춘다. 일정 시간 이후에, 짜으로 지어서 각자 일 이 분 생각들을 나눈다.

눈덩이 나누기

참가자들은 나눌 생각을 고르고 그것을 종이 위에 적는다. 그런 후 종이를 꾸겨서 뭉친 후에 인도자의 신호에 따라 그 “눈덩이”를 방 건너편으로 던진다. 참가자들은 자기가 받은 “눈덩이”에 적힌 메시지를 읽는다.

부록 B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실과 첫 단계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13가지 원칙 사용

공정하고, 친환경적이 되기 위한 13가지 원칙들(THE 13 PRINCIPLES TO BE JUST. BE GREEN.)

접근 가능성, 구매 가능성, 탄소 발자국, 건강한 음식과 음료, 공정한 경제적인 기회, 지역 연대, 다세대 포용, 종이 사용, 인종 정의, 독성 감소, 쓰레기 감소, 물 사용, 참가자들의 복지 등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13가지 원칙들을 구성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사회 정의의 핵심을 이룬다. 모임을 계획할 때 이 13가지 원칙들을 실천하는 측량 가능하고 실제적인 단계들이 있다. 이런 행동들은 개인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방식과 습관을 변화시킬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예를 든 사실들과 단계들은 건강과 온전함을 위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합적이고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unitedmethodistwomen.org/climate-justice.

원칙 3: 탄소 발자국

대중교통 수단을 택하든지, 차를 같이 타든지, 전기차나 혼합형 혹은 바이오디젤 연료로 가는 차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한다.

쓰레기, 물, 전기, 독극물 등에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도록 시설을 바꾸어 집에서나 사업체에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한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에너지 감사를 부탁한다. “기후 친화적”인 온도 조절계를 골라 더울 때는 에어컨을 덜 쓰고 추울 때는 난방을 덜 쓰도록 한다.

탄소 발자국이 적은 메뉴를 준비함으로써 음식과 쓰레기의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한다. 이것에는 먹이 사슬에서 낮은 데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포함한다 (붉은 고기를 빼고, 채소와 비건 식단을 더 늘리고, 장거리 비행기로 운송하는 식재료를 쓰지 않는다).

원칙 4: 건강한 음식과 음료

가능하면 지역 농부들을 후원한다 (250마일 이내). 자기 지역의 제철 음식으로 식단을 꾸미고, 가능하면 공인된 유기농 음식을 사용한다.

긍정적인 고용과 노동 기록이 있는 음식 재료상들과 공급원들을 후원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피한다. 유기농 차와 커피 같은 공정 거래 상품을 산다.

보통 평균 미국인들이 일 년에 270파운드의 고기를 먹는데, 전 세계 평균의 거의 4배다.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고기를 덜 먹는 것, 특히 소고기를 덜 먹는 것이다. 고기가 다른 어떤 종류의 음식보다 지구 온난화를 더 초래한다... 미국의 소고기 생산은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열 방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관심 있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쿨러, 스마터, 아일랜드 프레스(Cooler, Smarter, Island Press), 2011년.

원칙 10: 독극물 감소

우리는 독극물 제품의 직접적인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쓰는 상품을 바꾸어서 제조 과정에서 혹은 폐기 과정에서 독극 화학물을 요구하는 제품을 쓰지 말아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 독극물 폐기장은 주로 유색인들이 많이 사는 곳 혹은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이다.

- 무염소 처리된 종이 및 종이 제품을 사용하고 인쇄할 때는 콩 혹은 채소로 만든 잉크를 쓰도록 한다.
-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한다(난방, 냉방, 전기 등). 에너지 생산이 주요한 환경 관련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 독극물 배제 혹은 최소 원칙을 실천한다 (정원 가꾸기, 해충 제거, 페인트, 청소 용품 등).

원칙 11: 쓰레기 감소

쓰레기를 방지하는 연습을 한다. 어느 것이든 사기 전에 자문해 보라,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만 사고, 가장 친환경적인 형태로, 포장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포장만을 하고 사라. 가능하다면 재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음식 쓰레기는 썩힌다. 직접 썩히는 시스템을 만들라. 어떤 도시나 쓰레기 제거 회사는 이런 시스템을 쓴다. 지역 사회 정원이나 식물원 혹은 농업 봉사 서비스와 관련된 정원 프로그램에서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알루미늄 캔 하나를 재활용하면 텔레비전을 두 시간 켜고도 남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미트그린(MeetGreen).

원칙 12: 물 사용

물이 약하게 흐르는 꼭지, 샤워,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정원은 물이 최소한 드는 것으로 디자인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잡지에 의하면 욕조를 채우는데 약 70갤런의 물이 든다; 일반적으로 샤워를 하면 물을 절약한다.

보통 미국인들의 식단을 위한 물만 해도—한 사람이 하루에 약 1,000 갤런—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식단을 마련하고, 집에서 쓰고, 이동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필요한 물건을 소비하는데 쓰는 총 물의 양인 900갤런 이상이다. 자료 출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저자 소개

페이 윌슨(FAYE WILSON)

페이 윌슨(Faye Wilson)은 작가이자 교육자이며 음악가이다. 21년 동안 그녀는 총회 세계 선교부의 직원으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선교 교육에 관여해 왔다. 윌슨(Wilson)은 10번 선교학교 주제들에 관한 교재를 집필했다. 2015년에는 변혁을 위한 배움에 관해서 전체 모임을 위한 지도력을 제공했다. 2014년에는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라는 교재 지도자 지침서를 썼다. 2012년에는 어린이 빈곤에 관한 연구인, <다리 밑의 소녀>를 집필하고 가난에 관한 디브이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산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구조적인 가난>을 제작했다.

윌슨(Wilson)은 메릴랜드주 솔스베리(Salisbury, Maryland)에 있는 지페이 연합(GeeFaye Associates)이라는 음악 및 교육 자문 단체의 총무이다. 그녀는 또한 위코미코 (Wicomico) 카운티 공립학교 연합의 부모 참여 전문가로 일하면서, 워윅(Wor-Wic) 주립 대학에서 영작문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할로 쉘터(HALO Shelter) 프로그램에서 9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윌슨(Wilson)은 또 페닌슐라-델라웨어 연회(Peninsula-Delaware Conference) 솔스베리(Salisbury) 지방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부회장이자 메릴랜드주 관티코(Quantico)에 있는 시온산 감리교회(Mt. Zion UMC)의 음악 및 예술 목사이다.

윌슨(Wilson)은 종교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펜실바니아주의 윌슨 대학), 신학과(뉴저지주의 드류 신학교) 저널리즘(뉴욕 대학)의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 대학).

엘렌 립시(ELLEN LIPSEY)

엘렌 립시(Ellen Lipsey)는 교육자이며 어린이를 위한 대변인으로 텍사스주 밴 혼(Van Horn, Texas) 출신이다. 31년간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가르친 후 교실에서 벗어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제공하는 많은 기회를 통해 어린이들과 가정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

립시(LipseY)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그리고 연회 차원에서 여러 직책을 거쳤고, 그중에는 선교학교 인도자, 부학장, 학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 차원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이사로 섬겼고 뉴 멕시코 연회 프로그램 자문 그룹(New Mexico Conference Program Advisory Group) 대표로 섬겼다. 이사로 있을 때 립시(LipseY)는 총회 세계 선교부 이사회 이사로도 섬겼다.

그녀는 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비저스트 비그린(Be Just. Be Green.) 프로그램의 지역 총회 팀의 일부로 섬기면서 회의와 행사를 계획할 때 온전함과 정의를 장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맥커디 미니스트리(McCurdy Ministries)라는 국내 선교 단체에서 뉴 멕시코 연회 여성교회를 대표하는 이사로 섬기고 있다.

립시(LipseY)는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석사 학위는 교과 과정 및 교육으로 받았다.